

편지, 그 기다림과 그리움의 시학

내가 여전히 편지의 미덕을 기리는 이유

이문재 | 시인 · 《시사저널》 편집위원

‘우체국에 가면/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그곳에서 발견한 내 사랑의/풀이되어 젖어 있는/비에를/지금은 혼미하여 내가 찾는다면/사랑은 또 처음의 의상으로/돌아올까’ (이수익 <우울한 상송> 제 1연)

20여년 전이던 1970년대 후반, 습작기의 입구에서 만난 시 가운데 <우울한 상송>이 있었다. 그때 시를 어떻게 읽었던가. 우체국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태는 매우 시적이지만,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나의 상상은 산문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어렵사리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 몇 번을 찢고 다시 쓴 편지였을 것인가. 하지만 사랑은 떠났다. 아무래도 편지가 문제였던 것 같다. 하지만 어디 가서 해소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좋다, 편지를 보낸 우체국에라도 가보자.

우체국에 가서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편을 꿰고 돌아들’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의 화자는 끝내 잃어버린 사랑을 잊지 못하고, 언젠가 돌아올 사랑을 맞이할 때 지어야 할 미소를 디자인한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또 얼마나 소극적인 낙관주의였던가. 이 시가 발표된 때가 1960년대 후반이고, 내가 이 시를 외우고 다닐 때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시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첫 구절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를 웅얼거리던 때가 1980년대 후반이었다.

이 시와 더불어 살던 이십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이 시를 암송하고 다닐 때, 나는 우체국에서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죽어라고 편지를 썼고, 이 시의 첫 구절만 기억하고 있던 시절에, 나는 죽지 않으려고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다. 나의 이십대는 편지쓰기로 채워져 있었다. 대인 공포증 비슷한 증상이 지독했던 나는, 더듬거리는 말하기 대신 글쓰기로 중얼거려야 했다.

편지에서 전화기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30대로 접어들었고, 나의 직업은 학생에서 시인(일찍이 나는 전업시인이었다)으

로, 다시 시인에서 잡지 기자로 바뀌어 있었다. 편지로 사랑을 얻었다면, 나는 전화기로 취재원과 약속을 했고, 전화기로 취재를 했으며, 술에 취해 전화기를 붙잡고 옛 친구며 글판 친구들에게 뉘두리를 늘어놓았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달라지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도 급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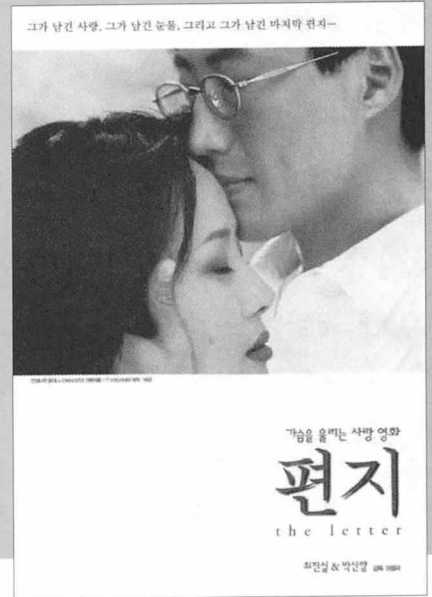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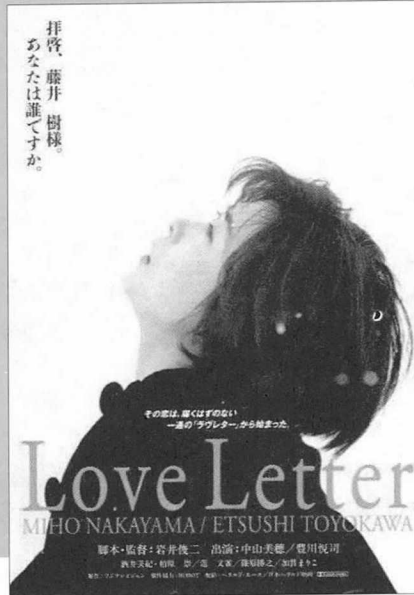
읽기와 듣기, 쓰기와 말하기는 전적으로 다른 행위다. 쓰기는 읽기를 토대로 하고, 말하기는 듣기 위에서 가능하다. 쓰기와 읽기 사이에는, 그 글쓰기가 일기가 아닌 한 시간과 공간적 거리가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말하기는, 그것이 녹음되는 것이 아닌 한, 시간적 거리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 거리를 나는 기다림 혹은 그리움이라고 번역해 왔다. 편지에서 전화기로 이동하면서, 나에게서는 기다림/그리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화기로 대표되는 ‘말하기-듣기’의 형식은 호출기와 이동전화, 그리고 이메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화를 걸고 받는 위치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거리, 즉 기다림/그리움은 그야말로 멸종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알리바이(부재 증명) 또한 난감해지고 말았다.

기다림/그리움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편지를 고르고, 필기구를 선택하고, 편지에 담을 내용을 가다듬은 다음, 마침내 등불 아래 혼자 앉아 첫 문장을 쓸 때,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펜 끝에 집중된다. 존재는 한 곳에서 팽팽하게 긴장한다. 그러나 첫 문장은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종결어미, 접속사와 부사 하나를 동원하는데 전 존재를 걸지 않을 수 없다. 한 문장을 완성할 때마다, 나의 삶과 운명이 재조정되고, 편지를 받아볼 상대방의 반응이 떠오른다. 이렇게 위태롭고, 폭발적이며, 그리하여 위대한 글쓰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감옥에서 쓰는 전향서나, 자살을 선택한 자가 남기는 유서, 또는 양심선언문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편지의 미덕이 편지쓰기의 고통스러움에서만 두드러지지 않는다. 편지를 편지에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봉인과 개봉 사이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때문이다. 수신인에게

편지보다 이메일을 더 선호하는 세상이 열렸다. 디지털 문명이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박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편지>와 <리브레터>는 편지를 매개로 한 최루성 영화인데, 모두 흥행에서 성공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디지털 문명을 거부하는 또 다른 유전자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도착하는데 걸리는 하루 이틀이란 시간도 견디기 어렵다. 가진 가는 것인가, 수신인은 그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편지는, 수신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처음 받아본 편지는 극과 극 사이에서 위협하다. 뭐, 이따위 편지가 다 있어, 라며 집어던지거나, 아, 그 사람이 그랬었구나, 라며 가슴에 품어보게 되는.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첫 문장도 아슴푸레해질 무렵, 나는 시인으로서 이 상스러운 도시 문명을 견디내기 위해 ‘산책’이라는 시적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산책 연작의 첫머리에 편지를 내세웠다. 산책시 연작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그런 발효의 시간이었습니다/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지요//그대가 가고 난 뒤/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우체통을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줄시 <푸른 곰팡이> 전문)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가 십수년이 지나, 우리 사랑이 잃어버린 것은 우체국이었다는, 우체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는 고백으로 변주된 것이다. 그렇다. 우체국이 있던 시절,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우체국을 서성거리던 시인과, 우체국이 사라진 시절, 신용카드 청구서나 납입 고지서, 또는 상품 카탈로그로 가득 찬 빨간 우체통을 바라보는 시인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버린 것이다.

디지털 문명의 최종 목표는 기다림/그리움과 관련된 유전자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편지에서 전화기와 팩시밀리로, 다시 호출기와 이동통신, 그리고 컴퓨터 통신으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속도에 길들여졌고,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됐다. 이를테면 계단만 있던 시절에, 누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초조해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 사나흘 걸려 수신인에게 도착되는 편지의 시절에 누가 느리게 뜨는 컴퓨터 화면앞에서 분통을 터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

커서의 움직임과 전송 속도, 혹은 프린트 속도에 의해 기다림/그리움은 박멸되고 있다. 속도 지상주의, 속도 패권주의 앞에서 편지로 대표되는 종이 위에 글쓰기는 골동화(骨董化)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종이 위

의 글쓰기가 갖고 있는 위력을 신앙하고자 한다. 손(촉감)과 눈(읽는 방식)으로 대표되는 몸의 기억력을 나는 믿고자 한다. 속도를 상품화하고, 마침내는 기다림/그리움을 멸종시키려는 이 디지털 문명의 그늘을 감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잊지 못한다. 초년병 시절, 내 앞으로 온 연극부 여선배의 편지를 읽을 데가 없어,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날 밤, 화장실 뒤에 쪼그려 앉아 달빛 아래서 읽었던 그 편지. 모눈종이 위에 만년필로 써어진, ‘문재야, 잘 있니’라고 시작되던 그 편지.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대구의 카페에서 스케치 북에다 4B연필로 사과를 그려넣고, 그 옆에다 사랑한다고 썼던 편지. 엮서 뒤에, 머리카락 대신 무수한 못을 박아놓았던 내 자화상과 몇 줄의 잠언들. 아, 그 많은 편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누군가의 눈물과 함께 불태워졌을 그 편지에 담겼던 언어들엔 지금 어디쯤을 떠돌고 있을까.

호가 사라지고 대신 영어로 표기하는 ID를 하나씩 갖는 세상, 집과 사무실 전화번호 대신 이동전화 번호를 갖는 시대, 집과 사무실 주소에다 이메일 주소를 하나 더 가져야 하는 문명. 그리하여 종이와 육필이 사라지고, 편지가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시절. 나는 뒤늦게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원고료를 쪼개, 틈이 날 때마다 질감이 좋은 종이를 사고, ‘거금을 들여’ 만년필을 산다.

잉크를 넣고, 촉에 묻은 잉크를 닦아낸 다음, 순백의 종이 위에 ‘기다림 혹은 그리움’이라고 쓸 때, 나는 디지털 문명을 거슬러 오르는 내 몸 속의 유전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곧, 이 무지막지한 속도의 시대가 가고, 느림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가로막고 있는 디지털 문명의 모니터가 사라지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직접 만나는 맑은 몸의 문명이 올 것이라는. 빠리릭!

핸드폰이 울리고 고함이 튀어 나온다.

“야, 넌 아직 이메일도 할 줄 모르냐!”

E-MAIL... 전자 우편?

그래, 나, 아직 할 줄 모른다! ●